



# 감염관리실에서 경험한 에이즈에 대한 몇가지 유형

오항순 |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전담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에이즈에 대한  
치료기술이나  
진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인식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에이즈 전문단체에서  
수행중인 각종 교육과,  
홍보,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이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겠다.**

감염관리실에서 일하는 지금까지 에이즈에 대한 많은 상담과 문의를 받아왔고, 그런 상담과 문의에 응하면서 나 스스로도 에이즈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되었고, 에이즈에 대하여 연구와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감염관리실에 에이즈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다.

가까이는 에이즈 환자나 환자의 수술이나 검사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 의료진들이 에이즈환자를 다루면서 궁금한 내용, 즉 소독이나 멸균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 다음으로는 일반인들인데 에이즈 감염을 우려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담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는 에이즈감염을 거의 확실하여 전문가보다 더 에이즈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으로 주장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려는 에이즈 염려증형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에이즈 감염자 또는 환자들이다. 이들의 문의와 상담 내용은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문의를 해도 그 내용이 다르다. 감염관리실에서 경험한 상담유형별로 구분해서 주요 관심사 및 상담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에이즈 상담이나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의료진을 포함한 의료기관 근무자

감염관리실에 문의하는 의료진을 포함한 의료기관 근무자(의료인)들은 대부분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를 처음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은 의료기관종사자 이면서도 에이즈에 대한 지식은 일반인 수준이어서 오히려 상담을 받는 측(감염관리실)에서 당황할 경우가 많다. 이들은 에이즈의 감염경로나 전파의 특징,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과는 달리 에이즈에 대하여 상당한 편견을 갖고있고, 또한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을 많이 갖고있으며, 환자에 대한 거부감을 상당히 갖고있어서 온연중이 환자를 가능하면 돌보고 싶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에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즉 전파경로, 감염의 특징, 에이즈바이러스의 소독제에 대한 효과, 의료행위 중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상세한 설명으로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하며, 특히 의료행위 중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정보의 수준은 많이 감소되나 심리적인 거부감은 어쩔 수 없이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이즈 초보 의료진들은 에이즈 환자관리를 일관 경험하고 나면 에이즈에 대한 정보의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고,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하여 자신을 갖게 된다.

또 다른 유형은 에이즈 환자를 돌보다가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자들로 감염우려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이다. 이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적인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우선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즈 전문의사를 방문하여 예방적 화학요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며, anti HIV 검사를 기본검사부터 6개월까지 추적검사를 해야한다.

다행히 의료기관내에 감염위험에 노출된 직원을 위한 직원감염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도 상당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오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행스럽기까지도 하다. 그러므로 각 의료기관에서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필수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 2.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유형

감염관리실에 에이즈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는 일반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직업적인 매춘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에이즈감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대부분 순진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나 검사절차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도록 조언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상담에 어려움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을 하면서 예상외로 직업매춘자를 찾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되었다. 이는 아직도 에이즈감염위험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 유형은 상담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본인의 에이즈감염을 거의 확신하고있으며, 에이즈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고, 자신이 에이즈에 대하여 익힌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에이즈 과잉리증 형이 있다. 이들은 본인의 감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에이즈 전문기관을 거의 전부 순회상담을 하고, 방송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에이즈에 대한 최신지식에 밝으며, 전화상담 시 본인이 의심하는 내용을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30분, 심지어는 한시간 가까이 대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한번 끊어도 본인이 이해가 되고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연속하여 전화를 한다. 이들에 대한 상담이 가장 어렵고 안타까울 때가 가장 많다. 이들은 정신과적 치료 및 지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권고도 전혀 듣지 않는다.

## 3. 에이즈 감염인 및 환자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과 사회적인 소외, 외로움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정부나 사회에 의존적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하여는 자신의 심정을 호소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자립의지 및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신 및 재활직업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에이즈에 대한 연구나 치료는 매우 발전했으나,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주변에서 잘못된 내용이나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인의 권고들 듣지 않고 본인의 지식수준에서 판단하여 중요한 결정을 잘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이즈에 대한 치료기술이나 진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인식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에이즈 전문단체에서 수행중인 각종 교육과 홍보,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이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겠다.